

●●● 최병광 연작공트 집필자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울 때 가장 보람



▲ 최병광 연작공트 집필자

▶▶▶ 현재활동

최카피연구소 대표 카피라이터
목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
카피라이터/컬럼니스트/광고평론가
국정홍보자문위원/국민연금자문위원

▶▶▶ 주요저서

글쓰기능력지수 RQ('05)
최카피의 워딩의 법칙('05)
최카피의 네이밍법칙('05)
세상을 다르게 보는 55가지 방법('06)

▶▶▶ 주요 카피

대한민국 국민은 침대에서 주무셔야 합니다.(에이스)
세상에는 이렇게 순한 술도 있습니다.(매취순)
힘 좋고 오래갑니다.(로켓트бат데리)
빨래끝(옥시크린)

본고는 지난 1987년 3월호 월간양계부터 본지에 연작공트를 게재하면서 전문내용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웃음과 재미로 휴식처를 제공하는 최병광(54세) 카피라이터를 월간양계 창간 37주년과 관련하여 함께한 20여년의 세월을 되새기고자 만나보았다.

월간양계와의 첫만남

최병광씨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월간양계에 만화와 만평을 기재해오는 이소풍 만화작가와 당시 10여년간 친분을 쌓고 지내면서 월간양계에 서로의 만화와 글로 독자들에게 작은 쉼터를

제공하자는 이소풍씨의 권유로 1987년부터 매달 연작공트를 게재하고 있다.

카피라이터로서의 활동

최병광씨는 월간양계의 연작공트를 제작하는 소설가이자 광고문안을 제작하는 카피라이터가 본업이다.

최병광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대학 전공에 국문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당시 스승인 김춘수 시인을 통해 문학의 깊이에 빠져들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는 현대문학을 전공하면서 전문가로 발돋움하였다.

졸업 후 공군장교를 마치고, 초창기 단행본 위주로 글을 게재하면서, 1980년부터 본격적 카피라이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잡지, 문학소설, 수필 참여와 강의 활동 등 황성한 활동을 벌이면서, 조일광고 대상 시상 등 10여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현재는 최카피 연구실 대표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체나 국정홍보처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은 물론, 교육기관 등에서 카피라이터로써 글쓰기나 창의력에 관해 강의교육과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후배양성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내용,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카피에 관한 서적을 6여권 집필하였고, 11월 중으로 직장인을 위한 글쓰는 방법에 관한 책을 발행하면서 카피와 소설에 관해 꾸준히 지식전달에 힘쓰고 있다.



▲ 작업실 내부

월간양계 구독자들을 위해...

20여년의 세월동안 360여편의 소설을 기재하면서 되풀이되는 내용과 소재가 없는 것은 특별한 에피소드를 찾기 보다는 관련서적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학습과 주변인들의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공트에 대입시킨다.

글을 쓰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이 힘들지만, 좋은 글과 광고 문안으로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울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 카피라이터라고 말한다.

글을 새롭게 쓴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변형시켜서 글을 만드는 것이다.

구독자에게 글이라는 간접경험으로 재미있는 내용추구와 삶에 있어서 경험이 되는 유익한 내용 두가지를 전달하려는 글을 월간양계 구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 (정리 | 장성영 기자)